

나주혁신도시 클러스터부지 난맥상 대두

혁신도시법 개정 전 분양 토지 '용지 목적 외' 사용에도 제재 불가능

클러스터 분양률 82% vs 착공률 48.67%…혁신도시 발전·완성 '발목'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완성과 활성화의 핵심 기반인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가 대규모 '고구마 밭'으로 둘러싸여면서 관리의 난맥상이 대두되고 있다.

20일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5월 현재 나주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용지는 전체 84개 필지 41만 4619.9㎡ 중 69개 필지 33만 9000㎡가 분양 완료돼 82%에 달하는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은 순항하고 있는 반면 착공률은 분양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67%를 보이며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 본사를 중심으로 분양된 클러스터 1블럭 3만 3794㎡(1만 222평)와 3블럭 4만 2015㎡(1만 2709평)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을 벗어난 '고구마 밭'으로 용도가 변경돼 사용되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고구마 모종이 대량 식재된 클러스터 1·3블럭은 '산업 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야 한다.

2014년 7월 광주도시공사가 공급한 해당 용지들은 분양 후 6년이 지난지지만 갈대밭으로 방치된 채 지식산업센터 착공이 미뤄지거나 금융권 대출금 상환 지연으로 경매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용지를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사업목적에 맞게 건축물을 착공해야 한다'는 강제 이행 조항도 없고, 목적 외로 전환 사용해도 이를 규제할 만한 미망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데 있다.

고구마 밭으로 둘러싸인 클러스터 용지의 경우 관리 주체인 전남도혁신도시 지원단 측이 토지소유자에게 '사업계획서 대로 토지를 사용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 제재의 전부로 확인됐다.

공문은 발송됐지만 고구마 밭으로 변질된 클러스터 1·3블럭의 경우 '농업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토지 소유자가 계속해서 농지 임대를 통한 이익을 취해도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클러스터용지의 활성화가 더디고 분양 후 수년이 지났지만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입증할 수 있다.

건축물 신축 후 분양 저조에 따른 공실률 증가로 투자금 회수와 이익 실현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당초 용지를 분양 받은 사업자들이 클러스터 활성화 보다는 향후 소유권 이전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분양받은 이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혁신도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분양된 클러스터 용지의 경우 조성 원가보다 짧기(㎡당 127만원)에 공급되면서

투기 세력이 활개를 쳤었다.

당시 투기세력들은 향후 부동산 매각 시 시세차익을 노리고 용지 분양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법인 쪼개기' 까지 시도해 용지를 분양받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 투기세력 차단을 목적으로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16년 6월 30일 이후 분양받은

용지에 대해서는 매각시 취득 이후 세금부과 금액 등만 인정하기로 하면서 투기 열풍이 잡잡해졌다.

나주혁신도시 조성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이 이뤄진 만큼 성공적인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가 시급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부지매입 상황과 당초 분양 목적대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기념촬영하는 성인들

성년의 날인 20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향교에서 열린 전통성년례 제현 행사에서 올해로 만 19세가 되는 청소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편과 공모해 딸 살해 친모 검찰 송치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언어니가 검찰로 넘겨졌다. 유치장을 나선 유씨는 취미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남편과 공모해 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유모(39)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유씨는 모자와 마스크 안경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호송차에 오르기 전, 유씨는 딸 살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와 '지금 심정이 어떤지' 등의 물음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유씨는 남편 김모(31)씨와 공모해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딸 A(12)양을 숨지게 하고 다음 날 오전 5시 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김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친부에게 알린 A양을 불리 보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지난달 9일과 12일 두 차례 목포경찰서를 찾아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친부와의 통화를 통해 신고 내용을 안 유씨는 김씨에게 신고 사실을 전했다. 이후 김씨는 '의붓딸을 죽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부는 지난달 초 생후 13개월 난 아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 지난달 16일 부부가 차량을 낙석 주의 구간에 세운 뒤 저수지를 향해 돌을 굴려 사체 유기 방법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A양의 몸에서 나온 졸피뎀 성분과 같은 성분의 수면제를 유씨가 구입한 정황도 밝혀졌다.

부부가 범행 이를 전인 지난달 25일 오후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2주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를 처방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에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살해하려 했다. 유씨가 수면제 7일을 직접 타 A양에 건넸다"고 진술했다.

A양이 수면제를 마신 뒤에도 졸다 깨다를 반복하자, 김씨가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A양을 광주 동구 저수지에 유기한 뒤 부부가 세 차례 유기장소를 재방문한 목적도 조사했다. 부부는 유기 뒤 사체가 저수지에 가라앉지 않자, 추가로 은폐 방법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인호 기자

민취해 동료선원 흉기 협박 30대 긴급체포

조업을 마친 어선에서 민취한 상태로 동료선원에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동료선원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행·특수협박)로 A(3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서쪽 400m해상을 지나던 19t급 연안자랑어선에서 동료선원 B(40)씨·C(48)씨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업을 마친 뒤 함께 술을 마시던 B·C씨 등 동료 선원들이 '술을 그만 마시라' 만류에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수차례 때렸으며, 이를 말리던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목을 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동료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A씨의 신병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혐의 중국인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중국인 A(3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압방동대로 모 교차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30분 동안 3차례 이상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신호대기 중 제동 장치를 밟은 채 잠이 들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골바로 시동을 꺼 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음주 측정 불응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현택 기자

아파트서 일가족 3명 흉기에 찔려 사망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A(51)씨와 이내(48), 딸(18)이 숨져 있는 것을 이들 B(15)군이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혈흔과 흉기 나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현장감식이 진행 중이다.

B군은 전날 새벽 늦게 취침한 뒷집에 이날 오전 11시께 잠에서 깨 집안을 둘러보다 사건 현장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가족끼리 다툼이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에 따라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군이 안정을 찾도록 돋고 있다.

법원민원실 여직원 마구 폭행 50대 검거

소송 과정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법원 민원실에서 여직원에게 커피를 뿌리고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오전 9시 50분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A(51)씨가 안내데스크에 근무 중인 여직원 B(33)씨에게 마시던 커피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불잡아 폭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여직원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아침 민원실을 찾은 A씨는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법원 직원이네'고 물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3년 동안 진행한 60억~70억원 상당의 건물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거지가 됐다"며 "법원의 일처리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폭행당한 직원은 A씨의 소송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직원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아직 이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다"며 "오늘 폭행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상공회의소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